

일부지역 대학생의 성 경험 영향요인

정애화*, 정유진¹, 김민영¹
¹대경대학교 간호학과

Affecting Factors Sexu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Ae Hwa Jaung^{1*}, Yu Jin Jung¹, Min Young Kim¹

¹Department of Nursing, DaeKy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 경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의 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 동안 경상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교 54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에서 성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 주거형태, 출신고등학교, 이성교제경험, 부모의 성 태도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 경험 시기는 '고등학교', 성관계 상대에서는 '당시 교제상대', 피임에 대해서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성 관계 장소에 대해서 '본인 또는 상대 집'이라고 많이 응답하였다.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 태도와 성 주체성이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나이, 부모의 성 태도, 성 지식, 성 태도가 영향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성 교육 프로그램 적용시기와 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고려해야 할 영향 요인을 나타내므로 이를 바탕으로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다면 대학생의 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ffecting factors of sexual experience by gender of 548 college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0th May to 20th June, 2013 in Gyeongsan City. Age, living arrangement, high school, dating experience and sexual attitudes of par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exual experience and gender. The sex experienced student were first sexual intercourse during high school, and sex partner was 'dating partner'. The sex experienced student answered 'sometimes' about contraception, and sex place was 'own or partner's house'. In correlation of factors, sexual attitude and sexual subjectivity was related. Affecting factor of sexual experience were age, sexual attitude of par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To improve effective and accessibility of sexual education program, it needs to use these study results and affecting factors in order to developing sex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dge students, Sexual attitude, Sexual experience, Sexual knowledge, Sexual subjectivity

1.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고, 활발한 문화의 교류로 인해 성과 관련된 문화와 성 의식 역시 개방적 관념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1, 2]. 인간의 성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관여하며, 가족을 형성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친밀감과 애정표현의 방법이지만, 전통적 한국 문화에서

는 저속하고, 수치스러우며, 불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성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및 예방법 마련이 사회전반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성과 관련된 문제로는 낙태문제, 사이버 성 폭력, 데이

*Corresponding Author : Ae Hwa Jaung(DaeKyeong Univ.)

Tel: +82-16-537-4490 email: aehwa007@yahoo.co.kr

Received August 8, 2014 Revised (1st October 27, 2014, 2nd November 26, 2014, 3th January 5, 2015) Accepted January 8, 2015

트 성 폭력과 인터넷을 통한 성 매매 등으로 발생되고 있다.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서 10~30대의 99.9%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 목적의 92%가 자료 및 정보획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3, 4]. 그리고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터넷 사용기회로 성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노출기회 또한 높다.

대학생들의 성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1099명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학생의 75.9%, 여학생의 30.7%가 성 경험이 있고[5], Kang[6]연구에서는 50.5%의 남학생과 19.3%의 여학생이 성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성교 경험 대학생의 17.6%가 원하지 않는 임신경험과 21.9%가 인공유산 경험이 있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 경험이 많고, 여학생은 첫 관계시 우연히 성 관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피임도 대학생 4명 중 1명만이 피임을 한다[7].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성 경험이 증가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병 등 성 위험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오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받아왔으나, 제공 받은 성 교육은 형식적, 교과서적, 이론적, 기본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 교육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다[8, 9]. 또한 성 고민의 의논대상으로 친구나 선후배를 가장 많이 찾고 있어,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9]. 이러한 성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는 대학생의 성 태도 확립 및 성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 초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들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의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성 교육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대학생들의 성 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성세대가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수혜자중심의 성 교육이 제공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성 행동 실태나 지식 측면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

학생들의 성 경험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성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성 경험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 경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research)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5월 20일에서 6월 20일까지 경상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 65명의 자료를 제외한 548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관련 변수는 나이, 종교, 전공, 거주환경, 출신 고등학교, 교제경험, 부모님의 성 태도이며, 성 경험 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시기, 상대자, 피임사용, 장소로 하였다.

2.3.2 성 지식

성 지식은 생식생리, 임신, 피임, 성병에 관련된 지식을 뜻하며[10], 측정 도구는 Kye[11], Kang[12], Rho[13]의 연구를 Whang[10]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전체 40문항은 성 생리 10문항, 성 건강 10문항, 피임 10문항, 성 폭력 및 성역할과 관련된 내용 10문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도구의 결과해석은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3.3 성 태도

성 태도는 성 행위와 성 심리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10],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wang[14], Lee[15]의 연구를 근거로 Whang[10]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42개 문항으로, 성 태도에 관한 하위변인으로는 성에 대한 생각 11문항, 혼전순결 7문항, 결혼관 7문항, 성 허용성 5문항, 동성에 5문항, 낙태 허용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역문항은 1, 2, 3, 7, 9, 10, 11, 13, 14, 18, 22, 23, 24, 25, 27문항으로 점수를 역처리함).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Whang[10]연구에서 신뢰도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05이었다.

1.3.4 성 주체성

성 주체성은 자기 자신의 신체와 성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으로[1], 측정 도구는 Kim[1] 도구로 총 20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 ‘의사반영-4문항’, ‘자기이해-4문항’, ‘갈등-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친구간의 성적인 대화에서 자신의 견해나 의지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이성친구의 의견에 따르는 부분이 많거나 자신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1]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반영 영역 .813, 자기이해영역 .764, 갈등영역 .66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반영 영역 .871, 자기이해영역 .853, 갈등영역 .782이었다.

1.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 설문지의 통계처리는 SPSS/Win 12.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 성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과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 정도는 평균값, 표준편차, t-test로 분석하였다.
- 변수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성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별에 따른 성 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별에 따른 성 경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에서 성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p < .001$), 주거형태($p < .001$), 출신고등학교($p < .001$), 이성교제경험($p < .001$), 부모의 성 태도($p = .001$)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집단에서 성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p = .010$), 이성교제경험($p < .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 성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p < .001$), 주거형태($p = .001$), 이성교제경험($p = .01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3.2 성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성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 경험이 있는 전체 대상자의 42.5%가 ‘고등학교’, 39.3%가 ‘대학 1~2학년’이었다. 성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31.2%가 ‘고등학교’, 15.9%가 ‘대학 1~2학년’이었으며, 성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15.6%가 ‘대학 1~2학년’, 9.5%가 ‘고등학교’이었다. 전체대상자, 남학생, 여학생 모두 성 관계 상대는 ‘당시 교제상대’이며, 대상자 전체 및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피임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성 관계 장소 역시 ‘본인 또는 상대방 집’이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 성 경험시기($p < .001$), 성 관계 상대($p < .001$), 피임($p < .001$), 성 관계 장소($p < .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Sex experienced by Gender

(N=548)

Sex experienced		Total		F(p)	Male (n=189)			Femal(n=359)		
		Yes n(%)	No n(%)		Yes n(%)	No n(%)	F(p)	Yes n(%)	No n(%)	F(p)
Age(yr)	20	84(15.5)	188(34.3)	45.800 (.000)	42(22.2)	48(25.5)	15.117 (.010)	42(11.7)	140(39.1)	27.734 (.000)
	21	57(10.4)	97(17.7)		26(13.8)	15(7.9)		31(8.6)	82(22.8)	
	22	38(6.9)	29(5.3)		10(5.3)	5(2.6)		28(7.8)	24(6.7)	
	23	17(3.1)	10(1.8)		14(7.4)	8(4.2)		3(0.8)	2(0.6)	
	24	13(2.4)	1(0.2)		10(5.3)	1(0.5)		3(0.8)	0	
Religion	over 25	10(1.8)	4(0.7)	1.425 (.700)	9(4.8)	1(0.5)	28.876 (.225)	11(0.3)	3(0.8)	32.107 (.124)
	Christianity	39(7.1)	57(10.4)		20(10.7)	14(7.4)		19(5.3)	43(12.0)	
	Buddhism	54(9.9)	68(12.4)		24(12.7)	12(6.3)		30(8.4)	56(15.6)	
	Catholicism	11(2.0)	19(3.4)		8(4.2)	5(2.6)		3(0.8)	14(3.9)	
Major	None	115(21.0)	185(33.8)	5.832 (.054)	59(31.2)	47(24.9)	1.097 (.578)	56(15.6)	138(38.5)	2.675 (.263)
	Humanities & Social	49(8.9)	90(16.4)		28(14.8)	25(13.2)		21(5.8)	65(18.1)	
	Music, Fine art, & Physical	76(13.9)	131(23.9)		28(14.8)	17(9.0)		48(13.4)	114(31.8)	
living condition	Science & Health	94(17.2)	108(19.7)	21.152 (.000)	55(29.2)	36(19.0)	4.603 (.331)	39(10.8)	72(20.1)	19.538 (.001)
	with family	89(16.2)	149(27.2)		47(24.9)	39(20.6)		42(11.7)	110(30.6)	
	with relative	8(1.5)	7(1.3)		5(2.6)	1(0.5)		3(0.8)	6(1.7)	
	self-boarding	72(13.1)	62(11.3)		31(16.5)	14(7.4)		41(11.4)	48(13.4)	
	dormitory	45(8.3)	108(19.7)		25(13.2)	22(11.6)		20(5.6)	86(24.0)	
high school	boarding	5(0.9)	3(0.5)	22.974 (.000)	3(1.6)	2(1.1)	4.629 (.099)	2(0.5)	1(0.3)	0.043 (.979)
	coed-combined class	69(12.6)	91(16.6)		36(19.0)	17(9.0)		33(9.1)	74(20.6)	
	coed-devide class	51(9.3)	93(16.9)		22(11.6)	25(13.2)		29(8.1)	68(18.9)	
	male school	53(9.7)	36(6.6)		53(28.2)	36(19.0)		0	0	
romantic relationship	female school	46(8.4)	109(19.9)	31.705 (.000)	0	0	27.692 (.000)	46(12.8)	109(30.5)	9.072 (.011)
	yes	192(35.1)	220(40.1)		102(54.0)	47(24.9)		90(25.0)	173(48.3)	
	present-no	27(4.9)	102(18.6)		9(4.8)	30(15.8)		18(5.0)	72(20.0)	
parents' sexual attitudes	no	0	7(1.3)	13.045 (.001)	0	1(0.5)	3.439 (.179)	0	6(1.7)	5.727 (.057)
	opened	50(9.1)	38(6.9)		29(15.4)	12(6.3)		21(5.8)	26(7.2)	
	moderate	125(22.9)	205(37.4)		64(33.9)	54(28.6)		61(17.0)	151(42.2)	
	closed	44(8.0)	86(15.7)		18(9.5)	12(6.3)		26(7.2)	74(20.6)	

[Table 2] Sex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Gender

(N=219)

Characteristics			Total n(%)	Male (n=189) n(%)	Femal (n=359) n(%)	F(p)
Intercourse experienced	yes		219(40)	111(58.7)	108(30.1)	55.483 (.000)
	Sexual experience period	middle school	25(11.9)	18(9.5)	8(2.2)	
		high school	93(42.5)	59(31.2)	34(9.5)	
		1~2nd grade in university	86(39.3)	30(15.9)	56(15.6)	
		3~4th grade in university	14(6.3)	4(2.1)	10(2.8)	
	Sexual intercourse partner	dating partner	169(77.2)	73(38.6)	96(26.7)	37.218 (.000)
		one-off meeting partner	17(7.8)	14(7.4)	3(0.8)	
		know each other	25(11.9)	19(10.1)	7(1.9)	
		brothel	4(1.8)	3(1.6)	1(0.3)	
		others	3(1.3)	2(1.1)	1(0.3)	
	contraceptive use	almost not	41(18.7)	23(12.2)	18(5.0)	44.927 (.000)
		sometimes	97(44.3)	45(23.8)	52(14.5)	
		use	81(37.0)	43(22.8)	38(10.6)	
	Intercourse place	own or partner' house	121(55.3)	62(32.8)	59(16.4)	40.760 (.000)
		in car	9(4.1)	7(3.7)	1(0.3)	
		accommodation	68(31.1)	28(14.8)	40(11.1)	
		business place	8(3.6)	4(2.1)	4(1.1)	
		outdoors	7(3.2)	4(2.1)	3(0.8)	
	no		329(60)	78(41.3)	251(69.9)	

3.3 성별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

본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 지식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성 건강($p=.002$), 피임($p<.001$)이었으며, 성 태도 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서는 성에 대한 생각($p<.001$), 성 허용성($p<.001$), 동성애($p<.001$), 낙태 허용성($p=.007$)이, 성 주체성 영역에서는 의사반영($p=.026$)이었다.

3.4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의 관계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 태도와 성 주체성은 정적인 상관관계($r=.111$, $p=.009$)를 나타냈다.

3.5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 관련 특성,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에서 유의한 변수만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나이($p<.001$), 부모의 성 태도($p=.023$), 성 지식($p<.001$), 성 태도($p=.006$)가 영향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3]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Subjectivity by Gender

(N=548)

Characteristics		Total mean±sd	Male mean±sd	Female mean±sd	t(p)
Sexual Knowledge	physiological sex	7.24±1.79	7.05±1.92	7.34±1.71	1.841(.066)
	healthy sex	7.86±2.16	7.48±2.15	8.06±2.13	3.058(.002)
	contraception	6.84±1.69	6.48±1.67	7.03±1.67	3.673(.000)
	sexual violent & role	7.40±1.85	7.34±1.87	7.43±1.85	0.543(.588)
	sub-total	29.34±5.68	28.3±5.66	29.9±5.62	3.011(.003)
Sexual Attitude	thinking of Sex	2.99±0.62	3.18±0.64	2.89±0.58	5.402(.000)
	acceptability of sexual relation before marriage	2.90±0.61	2.94±0.54	2.88±0.64	1.244(.214)
	thinking of marriage	3.12±0.49	3.08±0.48	3.15±0.49	1.591(.112)
	acceptability of sex	2.85±0.66	3.16±0.64	2.69±0.61	8.548(.000)
	acceptability of homosexual love	3.11±0.88	2.94±0.88	3.20±0.86	3.391(.001)
	acceptability of abortion	3.02±0.65	2.91±0.63	3.07±0.66	2.714(.007)
Sexual Subjectivity	sub- total	3.00±0.35	3.15±0.33	2.96±0.36	2.883(.004)
	Feedback	2.39±0.89	2.50±0.93	2.32±0.87	2.226(.026)
	understanding of own	2.82±0.86	2.87±0.87	2.80±0.86	0.819(.413)
	confliction	3.64±0.86	3.72±0.82	3.60±0.87	1.501(.134)
	sub-total	2.84±0.36	2.90±0.38	2.80±0.34	2.970(.003)

[Table 4] Relationship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Subjectivity

(N=548)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Subjectivity	
	r	p	r	p	r	p
Sexual Knowledge	1.000		.042	.327	.030	.490
Sexual Attitude			1.000		.111	.009
Sexual Subjectivity					1.000	

[Table 5] Influence Factors of Sex Experience

(N=548)

	B	β	t(p)	F(p)
contents	4.703			
Age	0.102	0.249	6.162(.000)	
parents' sexual attitudes	0.072	0.092	2.272(.023)	13.433(.000)
Sexual Knowledge	0.275	0.196	4.856(.000)	
Sexual Attitude	0.155	0.113	2.783(.006)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한다.

성별에 따른 성 경험은 전체 대상자의 40%, 남학생의 58.7%, 여학생의 30.1%가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50.8%, 여학생 19.0%이 성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16], 남학생 48.2%, 여학생 15.8%이 성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17],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성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18],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 경험 유무행동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연구[2]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다. 남학생의 성 경험은 40~50%사이에서 큰 변화 없는데 비해 여학생의 성 경험 비율은 계속 증가한다[17]. 이처럼 여학생의 성 경험의 증가는 여성들의 성 의식 변화와 함께 혼전 성 경험과 활동이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대상자 상담과 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가 20세일 때 가장 많이 성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성 경험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성 경험을 가장 많이 한다는 연구[19][20]와 첫 성 경험 시기를 대학 1~2학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고 설명한 연구[21]와 유사하였다. Lee and Sim[17]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성 경험을 한 시기로 대부분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고등학교 시기부터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학생 1학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대학생들의 1/4이 첫 성 경험하는 것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과 MT등 행사가 많이 계획되고, 이성과의 접촉도 많고, 음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7].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 교육 시기는 대학입시 시험이후 또는 대학 입학 시기 이전부터 실시하는 것이 성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 지식, 태도, 주체성에 관한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각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 지식영역에서 본 연구 대상자중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성 건강과 피임이며, 성 지식영역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 성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성 심리, 임신, 성폭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도 성 지식 수

준은 차이가 있었다[6]. 그리고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성 심리에서 높은 성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 대학생은 임신, 성폭력 영역에서 높은 성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23]. 연구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여학생들의 성 지식 수준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성 태도 영역에 대해 본 연구 대상자는 성에 대한 생각, 성 허용성, 동성애, 낙태 허용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1][8]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태도에서 좀 더 허용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성 행위, 순결, 이중적 성 가치관, 음란매체에 대해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개방적 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대학생의 성 태도에 따른 차이를 설명한 연구[11]에서는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15~19세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공학파에 따른 성 태도는 의료보건계열이 비 의료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개방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전통적 성 역할과 성 규범이 남녀 대학생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주체성은 대인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성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는 지에 따라 형성된다[1]. Kim[1]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충족하는가를 배우는 것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주체성에 대해 연구한 Kim[1]연구에서는 남학생 3.33점, 여학생 3.10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성 주체성을 나타냈으며, 성 주체성과 성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성 주체성이 높을수록 성 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이성 친구와의 성적인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가 클수록 대학생들은 개방적인 성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Han[24]연구에서도 성 주체성에 대한 성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적인 의사소통에서 대상

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 and Kong[25]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 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문화적 환경, 성장환경, 자아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주체성을 변수로 연구한 Shin, Hwang and Park[26] 연구에서는 3.915점/5점으로 나타났으며, 성 주체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성 매매의 유해성을 적게 인식하고, 성 행동을 정당화하고, 성 판매나 성 구매의도의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 주체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부모나 사회로부터 수동적이고 억압적인 성 태도를 학습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 주체성은 자연스러운 성적 발달을 수용함은 물론 대상자 스스로 성적 주체로서 결정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어느 한 측면만을 포함하기 보다는 다각적 측면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대학생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성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좀 더 건강한 대학생의 성 주체성 확립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 태도와 성 주체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성 지식과 성 주체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성 주체성이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한 Kim[1]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Lee and Sim[17]연구에서는 성 지식과 성 태도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는 개방적이며, 성 지식이 낮을수록 성 태도는 보수적인 결과로 보고하고 있다. Kim[8]연구에서는 성 지식, 태도와 자율성의 관계에서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성 지식이 높았고,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자율성 점수가 높았으며, 성 자율성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 점수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7]연구에서는 성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성 행동 정도가 감소하고, 성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성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im[28]연구에서는 이성교제는 성 지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성 지식은 성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성 역할은 성 태도와 성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ol[2]

연구에서도 성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 허용도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Kang[6] 연구에서는 성교 경험 예측요인으로 성태도, 이성교제여부, 학년, 병역, 성 관련 매체 접촉경험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녀 모두에서 이성교제 경험이 성 경험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이성 친구 경험이 대학생의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한 연구[21]와 이성교제 경험을 한 대학생이 이성교제 상대자와 스킨쉽과 성 관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고 한 연구[29]과, 이성교제 경험여부가 성 지식을 습득하는데 경험이 없는 학생들 보다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6]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Yoo & Kang[22]연구는 과거 이성 친구와의 교제 경험이 성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 경험이 효율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성교제가 시작되는 중·고등학교시기에 이성교제 올바른 의사소통법과 건강한 교제방법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성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 태도, 성 지식, 성 주체성 등 관련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성 행동으로 인한 성 경험은 본인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였는가가 중요하며, 보수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 행동을 하였다면 문제가 된다. 성인으로써 성 역할과 책임을 준비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발달과업으로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까지 연계된 성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성별과 성 경험유무와 성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 경험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체 대상자에서 성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 주거형태, 출신 고등학교, 이성교제경험, 부모의 성 태도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집단에서 성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 이성교제경험이, 여학생 집단에서는 연

령, 주거형태, 이성교제경험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 경험 시기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성관계 상대에서는 ‘당시 교제상대’가 가장 많았다. 피임에 대해서도 전체 대상자는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관계 장소에 대해서 ‘본인 또는 상대 집’이 많았다.

성 지식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성 건강, 피임이었으며, 성 태도 영역에서 성에 대한 생각, 성 허용성, 동성애, 낙태 허용성으로 나타났으며, 성 주체성 영역에서는 의사반영이었다. 성 지식, 성 태도, 성 주체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 태도와 성 주체성이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의 편이추출 되었으므로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확대된 연구 변수와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im, Y. 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11.
- [2] Ho, S. M.,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9.
- [3] Chung, M. Y., & Cho, O. H., “Psycho-soci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depending on a Level of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5), 366-376,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5.366>
- [4] Shim, J. W., “Motivations for internet Pornography Search and Perception on Cybersex: Focusing on Gender and internet Pornography Us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6), 148-157,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6.148>
- [5] Lee, H. K., “Predictors of Condom Use Intentions according to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in 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6(2), 194-203, 2010.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0.16.2.194>
- [6] Kang, H. Y.,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lunghoe University, 2007.
- [7] Sohn, A. R., & Chun, S. S.,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18, 73-100, 2005.
- [8] Kim, Y. J.,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and safer sexual behaviour in the experienced university students of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356-366,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356>
- [9] Shin, Y. H., Chun, Y. K., Cho, S. M., & Cho, Y. R., “The Effects of a Sex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5(7), 1304-1313, 2005.
- [10] Whang, I. M.,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2009.
- [11] Kye, S. Y., *The study of change in knowledge and attitude as the result of sex education: focusing on the 1st grade students in girl's middle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9.
- [12] Kang, H. S., *A thesis on sex knowledge, sexual behavior, and point of views about sex of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2002.
- [13] Rho, M. Y.,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of middle schoolers by gender, type of school and academic yea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7.
- [14] Hwang, E. Y., *Study on the value-orientations and the related variabl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1974.
- [15] Lee, S. J., “Development of a Rape Myth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3(2), 131-148, 1999.
- [16] Shin, K. R., Park, H. J., Bae, K. E., & Cha, C. Y.,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22(6), 624-633, 2010.
- [17] Lee, G. Y., & Sim, I. O., “Factors Affecting Sexual Experiences of Freshmen in College”, *Health and Social Science*, 34, 159-182, 2013.
- [18] Kim, S. J., Moon, S. T., & Kang, H. S., “Factors

-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4), 434-443, 2011.
- [19] Hur, M. H., Ahn, H. Y., Kwak, E. A., Kim, K. M., Park, J. Y., & Lee, J. I. R.,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7(3), 267-275, 2007.
- [20] Kim, Y. J.,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and Safer Sexual Behavior in the Experienced University Students of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356-366,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356>
- [21] Woo, G. H.,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0.
- [22] Yoo, G. S., & Kang, S. H.,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Sex and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1), 101-118, 2010.
- [23] Jeon, G. S., Lee, H. Y., & Rhee, S. J.,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45-68, 2004.
- [24] Han, E. J., *A study on cause having an effect on adolescence's subjective consciousness about sexu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2003.
- [25] Choi, M. J., & Kong, M. H., "The Development of Sex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Sexual Subjectiv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Women's Studies*, 18, 129-185, 2007.
- [26] Shin, J. Y., Hwang, H. W., & Park, H. 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erceived Economical Difficulty on the Adolescents' Attitude to Prostitution: Focused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Sexual Subjectivity",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29(1), 27-38, 2012.
- [27] Kim, M. O.,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8), 3876-38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876>
- [28] Kim, M. S.,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Behavior of a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5), 252-258, 2010.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0.10.5.252>

- [29] Cho, S. H., *A Study on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Da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12.

정 애 화(Ae-Hwa Jaung)

[정회원]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졸업
- 2004년 3월 ~ 2009년 12월 : 대구 과학대학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 노인간호, 간호교육

정 유 진(Yu-jin Jung)

[정회원]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졸업
- 2005년 3월 ~ 2010년 1월 : 춘해 보건대학 전임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호스피스

김 민 영(Min-Young, Kim)

[정회원]



- 2014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졸업
- 2005년 3월 ~ 2007년 2월 : 춘해 보건대학 강의전담교원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대구 과학대학 프로젝트교원
- 2009년 3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 다문화간호, 보건교육